**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

1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 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4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5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6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방금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유명한 시입니다. 살면서 기쁠 때나 슬플 때, 평안할 때나 힘들 때, 확신에 차 있을 때나 의심에 싸여 있을 때, 그 어느 때 읽어도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 시편 23편에 대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읽었던 모든 책들 중에서 성서의 이 말씀만큼 나에게 위로를 준 글은 없다.” 저희 집 화장실 문 앞에도 이 말씀이 붙여져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변기에 앉아 있다가 어느 순간 기대치 않았던 은혜를 받곤 합니다. 제 딸 한별이도 자연스럽게 이 말씀을 암송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의 저자는 다윗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한때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양을 쳐본 경험이 있었고, 때문에 양들의 생리를 잘 알았습니다. 양에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양은 눈이 나쁩니다. 잘 속습니다. 잘 넘어집니다. 그리고 넘어지면 못 일어납니다. 양은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입니다. 방향감각이 없습니다. 방어력이 제로입니다. 때문에 양은 목자가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다윗은 또한 목자의 마음을 잘 알았습니다. 목자는 자기 양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목자는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꼴을 먹입니다. 또한 쉴만한 물가로 데려가 기력을 회복시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목자의 자존심을 걸고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양들은 편하고 좋은 길로만 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목자는 때로, 양들을 어둡고 험한 골짜기 길로 인도해야 하기도 합니다. 이때 목자는 그 어느 때보다 주의를 기울입니다. 양들이 다칠 수도 있고 길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지고 있던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사나운 들짐승들로부터 지켜줍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한 목자는 결코 자기 양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이와 같은 선한 목자였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 앞에서 떨고 있을 때, 다윗은 사울 왕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 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죽였나이다”

또한 다윗은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선한 목자이심을 여실히 체험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의 되리라는 약속을 받고도 무려 15년간을, 사울 왕을 피해 도망다녀야 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그에게는 중간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차례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기름부으신 사람을 자기 손으로 해할 수 없다며, 그 기회를 무산시킵니다. 고난의 시간을 단축시키고 싶은 유혹을 참아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기다리기로 한 것입니다.

한번은 사울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을 찾다가 결국 적국인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블레셋이 어떤 나라입니까? 다윗이 쓰러뜨렸던 적장 골리앗의 나라입니다. 벌써 여러 차례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적국 중의 적국입니다. 오죽하면 그곳으로 들어갔겠습니까. 하지만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다윗 일행은 체포됩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신세가 처량하다 느꼈을 것입니다. 이러다 정말 죽는 건 아닌가 심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때의 심정을 그는 시편 56편에서 다음과 같이 토로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그러나 곧 이어 그는 마음에 중대한 결단을 내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두려움은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느끼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결코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 힘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나를 던져야 가능한 일입니다. 무게중심을 나 자신에서 하나님께로 다시 옮겨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너무나 두렵고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그 상황 자체가 아니라, 상황 너머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시간이 흘러 결국 사울은 전쟁터에서 죽고, 마침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의 지난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에게 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그 하나님이 그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 무엇보다 그를 참 신앙의 사람으로 빚어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를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시던 날에 다윗은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다윗의 고백은, 한가로운 상황 속에서 그냥 쉽게 내뱉은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제 내 삶에는 어려움이 전혀 찾아오지 않으리라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따르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속성을 끝까지 신뢰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허락하시는 것에 늘 자족하며 감사하겠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6절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런데, 요즘 사람의 눈으로 보면, 다윗은 참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세상의 중심에 놓고, 다른 모든 것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하곤 합니다. 이러한 경향은 물질적인 것뿐 아니라 종교적이고 영적인 것에도 해당합니다. 그들에게 영원한 진리는 없고, 유익한 지혜들만 있을 뿐입니다. 무언가 확실한 권위를 지닌 것에 자신을 우직하게 헌신하기보다, 유익해 보이는 것들을 자기를 위해 효율적으로 소비합니다. 마치 수퍼마켓에서 마음에 드는 물건을 골라 장바구니에 담듯 말입니다.

이처럼 현대인들의 종교성은 매우 자기중심적입니다. 과거와 같이, 교회나, 민족이나, 이념 공동체에 자신을 일치시키는 형태의 종교성을 거부합니다. 자기를 중심에 놓고, 그 출처가 어찌됐든 나를 영적으로 강하게 하고 만족케 할 것 같으면, 무엇이든 자기 안으로 흡수합니다. 뉴에이지 운동 주창자들이 흔히 말하듯, 세상에 널리 흩어져 있는 비밀스런 영적 지혜와 에너지들을, 찾아내고 빨아들여, 나를 좀 더 괜찮은 존재로 만들고자 합니다.

2008년도에 있었던 한 공신력 있는 설문조사에 따르면, 체코인들 중에 소위 점쟁이의 말이나, 부적, 혹은 별자리 등의 점괘를 믿는다고 대답한 사람이 인구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한국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향은 비단 비-그리스도인들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체코내 기독교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카톨릭 신자들 중에서, 그러한 것을 믿는다고 대답한 이들의 비율은, 놀랍게도 그 평균치보다 높았습니다. 그 중에 심지어 환생을 믿는다는 카톨릭 신자도 전체의 사분의 일을 차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최근 유행하는 영적 경향에 적잖이 영향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자기중심적 영성은 그 순간엔 효과적인 듯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한위험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즉 그런 식으로 흡수된 서로 다른 배경의 다양한 영적 컨텐츠들은 내면에서 자기들끼리 마구 섞이면서 돌연변이를 일으킵니다. 그리하여 정체불명의 새로운 영적 결과물들을 만들어냅니다. 문제는 그것들을 평가하고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이 자기 안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실로 다양한 이단과 사이비들이 출몰하고, 또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이 어이없는 이설에 현혹되곤 하는 현상은, 그들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산만하고 무절제한 움직임들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는 이와 같은 자기중심적인 종교성이 거의 절정에 이르던 시기였습니다. 사사기 기자는 이 시대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한 마디로 요약합니다.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서 왕은 단순히 정치적 의미의 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걸음을 의의 길로 인도해줄 목자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 사사시대 말기에 있었던 중요한 일화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사사 역할을 하던 사람은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식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홉니와 비느하스, 두 망나니 아들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그 즈음, 이스라엘은 또다시 주변국 블레셋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맞서 싸웠지만 패했고, 군사 약 사천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장로들 회의에서 한 가지 결정이 내려집니다. 당시 실로라는 곳에 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와 군대 진영 속에 두자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사람들이 부적을 사와서 이불 밑이나 집 어딘가에 붙여두는 것과 같습니다.

언약궤가 진중에 들어올 때 이스라엘 군대가 큰 소리로 환호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놀라 서로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신이 들어왔으니 이제 큰일났다. 자, 블레셋 군인들아, 더 힘을 내어 싸우자!” 결과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대패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삼만 명이 죽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습니다. 그 언약궤를 지키던 홉니와 비스하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제사장 엘리는 앉아 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당시 임신중이던 비느하스의 아내는 그 소식을 듣고 조산하면서, “이가봇!”이라고 소리칩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들어간 뒤로부터 그 땅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블레셋 백성들을 독한 종기로 치신 것입니다. 마침내 블레셋인들은 그 궤를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와의 언약궤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엄중히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합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거기서 그들은 금식하며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거기 모였다 함을 듣고 블레셋 군대가 다시 쳐들어옵니다. 그 소식을 접한 사무엘은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며 기도합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가까이 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개입하십니다. 블레셋 군대에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십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두고,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 그 일을 기념합니다. 그 돌에 붙여진 이름이 ‘에벤에셀’, 곧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시편 23편을 읽으며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다윗의 신앙에 좀 더 초점을 맞추기 원합니다. 물론 이 한 구절의 말씀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를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신앙고백은 기독교 신앙의 바른 기초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며 따른다는 것입니다.

“문지기는 목자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신앙은, 신앙의 개념이 모호해져 버린 이 시대에, 마치 하루 중 가장 어두운 시간을 비추는 샛별과도 같습니다. 그를 통해 우리는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참된 신앙은 나를 중심에 놓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에 놓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당장의 유익을 좇아 나를 더럽히지 않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를 의탁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내가 처한 상황에 절망하지 않고,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꼬빌리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참으로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냐구요? 어떻게 증명하면 되겠습니까? 당신을 위해 그분의 가장 귀한 것을 희생하신다면 믿겠습니까? 예, 하나님은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양과 같이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 53:6)

예수님은 양과 같이 연약한 우리를 위한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한 예수님은 양과 같이 어리석은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 중심의 신앙생활은 무의미하며 열매가 없습니다. 신앙은 도약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사랑할 수 없는 중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십시오! 예수님께 자신을 일치시키십시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고 풍성한 삶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중심의 참된 신앙을 가지고, 선한 목자되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 늘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선하고 인자하신 손길로 저희의 가는 길을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참된 신앙 안에서 늘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당신을 의지하며 따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